

양식장 초토화·과수농가 쑥대밭...수천억대 피해

태풍 블라벤 강타...광주·전남 3명, 전국 사망·실종 25명
정전·주택 파손 등 피해 확산...“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관련기사 2·3·6·7·8·9면

초속 59.5m의 기록적인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5호 태풍 ‘볼라벤’ (BOLAVEN)이 28일 광주·전남지역을 강타하면서 3명이 숨지고, 수천억 원대가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제주도 인근 바다에서 중국 어선 2척이 높은 파도에 뒤집어져 4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되는 등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국적으로 2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이번 태풍은 이날 오전 9시에 목포 북서쪽 100km 해상을 통과한 뒤 북상하면서 광주·전남을 휩쓸고 갔다. 무등산 장불재의 순간 최대 풍속(초속) 59.5m를 기록했다. 강진에서는 강우량이 213.5mm를 기록하는 등 강풍과 함께 내린 폭우도 피해를 키웠다.

이번 태풍으로 완도군 완도를 망남리 앞 해상 전복 가두리 양식장 35ha가 완전히 파손되는 등 양식장의 피해가 컸다. 여수 등지의 양식장에서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볼라벤’은 추석을 앞두고 수확의 기쁨으로 부풀었던 농심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나주와 순천 등지의 배 재배 과수원에서 낙과 피해를 입었고, 광주시 남구 대촌동 일대 시설농가의 비닐하우스 100여동도 강풍에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찢겨나갔다.

‘볼라벤’으로 인한 농·어가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4127억원의 피해를 낸 2002년 태풍 ‘루사’와 이듬해 268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매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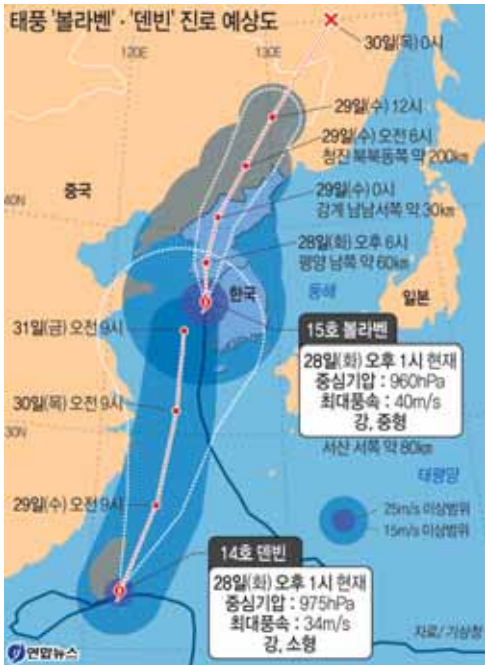
태풍의 여파로 출근길이 마비되고 하늘과 빗길도 막혔다. 목포대교를 비롯해 고흥 소록대교와 거금대교, 여수 백야대교, 강진 고금대교, 제2진도대교 등 6개 교량이 한때 전면통제됐다. 또, 목포, 여수, 완도 등 3곳의 여객선터미널을 오가는 50개 항로 80척의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다. 또 광주발 제주행과 김포행 항공편도 전면 결항했다.

정전과 주택 파손도 잇따랐다. 진도 전역이 3시간 동안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되는 등 광주·전남 지역 85만1573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석유화학업체들이 밀집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는 28일 새벽 순간 정전 때문에 일부 업체가 일시 조업을 중단했다.

또 주택 12채가 반파됐으며, 도심에서도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전남도내 전역과 광주 도심에서 간판과 가로등 수백개가 떨어져 나가거나 부러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길가 가로수도 뿌리째 뽑히거나 부러졌다.

광주·전남 소방본부에는 새벽부터 간판 등 건물에 부착된 시설물이 떨어졌거나 아파트 유리창이 깨졌



다는 피해신고가 쇄도했다.

이처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인 민주당 주승용(여수)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서 효과적으로 태풍 피해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 의원도 “정부는 조속히 피해 규모를 조사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피해 주민에게는 복구와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기상청은 볼라벤이 28일 오후 6시 평양 남쪽으로 접근했으며, 29일 새벽 6시에 함경북도 청진 북서쪽 약 200km 부근을 지나 빠른 속도로 중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오광록기자 kroi@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날아간 돔지붕

28일 초강력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목포시 대양동 목포국제체육센터 내 하프 돔구장 지붕이 찢겨 바람에 날리고 있다. 고강도 천으로 만들어진 막구조물은 가로 80m, 세로 60m로 가격이 8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35년 1인가구 대세...광주 미혼, 전남 사별 가구 최다

2035년 광주에는 미혼가구가, 전남에는 사별하고 노인 혼자 사는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 추계 시·도편 : 2010~2035’에 따르면 2010년 광주는 미혼가구가 15.7%로 서울(20.1%), 대전(18.0%)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지만 2035년에는 미혼가구 비중이 25.5%로 늘면서 전국에서 미혼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경우 2010년(21.8%)에 이어 2035년(22.3%)에도 사별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예측됐다. 2010년 현재 광주와 전남의 1인 가구 비중은 각각 31.4%, 44.0%다. 하지만 2035년에는 1인 가구 비중 42.3%, 51.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는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층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남(62.8%) 전북(55.0%) 경북(53.

5%) 경남(52.6%) 부산(50.8%)은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는 65세 이상이면 혼자 사는 가구가 26.6%에 이를 전망이다.

가구원 수도 줄어 2035년에 전남(1.88명), 경북(1.89명), 강원(1.95명), 충북·충남(1.96명) 등 5개 시도는 평균가구원이 2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적으로는 2010년 현재 부부

+자녀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0%로 가장 많았지만, 2035년에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4.3%로 가장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부와 자식이 동거하는 가족구조가 급격히 해체되는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가족구조가 해체되는 현상과 맞물려 미혼, 배우자 사별, 이혼 등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1인 가구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www.hpdynastycc.co.kr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홀인원 대박을!!

로또 누적방식 홀인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1.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최초 시드머니 100만원을 2개의 Par3 홀에 겁니다.
2. 도전을 희망하시는 팀은 Tee off 전에 1만원을 배팅합니다.
3. 홀인원에 성공하시면 그때까지 누적된 상금의 90%를 수상 하게 됩니다.
→10%는 차기 홀인원 시드머니로 적립됩니다.
→소속세는 수상자 부담입니다.
4. 누적된 상금액은 매일 실시간으로 프론트에 게시됩니다.
5. 이벤트 홀은 임페리얼코스 7번, 펠릭스코스 20번홀 입니다.

진초록 양잔디 키펫을 밟으며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을!!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 예약전화: 061-7700-7777